

# KIA 아데를린 “준비된 타자...팀 승리 이끌 것”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쏟아내 팀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KIA타이거즈 해럴드 카스트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KIA는 지난 4일 아데를린 로드리게스와 계약기간 2년 연봉 6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햄스트링 부분 손상을 당한 해럴드 카스트로의 장기 이탈을 대비해 빠르게 대체 외인을 영입한 것.

아데를린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신장 190cm, 체중 95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내야수다.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NPB), 멕시코 리그 등 다양한 무대를 경험한 장타형 타자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는 3시즌 동안 236경기에서 출전해 타율 0.296 60홈런 204타점 OPS 0.939를 기록하며 뛰어난 공격력을 입증했다.

NPB에서는 2시즌 동안 83경기 타율 0.202 8홈런 34타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멕시코 리그에서는 134경기에서 타율 0.323 42홈런 125타점 OPS 0.966으로 맹활약했다.

KIA는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아데를린이 중심 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데를린은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 “오늘 선수단에 합류했지만 피곤하지는 않다. 이동 과정은 새로운 곳에 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오늘 게임을 위해서도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아데를린은 “경기장에 나가서 매 순간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다. 팀 승리를 이끌기 위해 선수단에 잘 녹아들 것”이라며 “상대 투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타자가 되고 싶다. 홈런 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홈런을 노리기보다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프로야구를 비롯해 다양한 리그에서 뛰어난 베테랑이다.

## 카스트로 대체 외인으로 합류 6주간 연봉 5만달러에 계약

## 마이너·NPB·멕시코 경험 풍부 “매 경기 집중...강한 타구 생산”

이 경험을 토대로 KBO리그에 잘 적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데를린은 “일본프로야구를 비롯해 멕시코, 미국 등 여러 곳에서 뛰어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한국리그에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아데를린은 “이전에도 KBO리그 팀에서 오퍼가 있었다. 그때는 상황이 안 돼서 오지 못했다. 이번



에는 알맞은 타이밍에 KIA에서 오퍼를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 기회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아데를린은 KBO리그에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도 친분이 있다.

그는 “라울 알칸타라(키움)와 다즈 카메론(두산) 등 다양한 선수들과 친하게 지낸다. KIA에서 뛰었던 스킨스피드와도 인연이 있다”면서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줬다”고 했다.

카스트로의 대체 외인으로 6주간 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 좋은 성적을 낸다면 정식 계약의 가능성도 있다. 그는 매 경기 집중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데를린은 “KBO리그가 외국인인 될 기회가 제한적이다. 비록 6주라도 기회를 잡게 돼서 기쁘다. 가족들도 한국으로 와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면서 “6주 이후 계약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매 게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KBO리그는 ABS와 피치클락이 시행되고 있다. 그는 “이미 ABS와 피치클락은 경험을 해봤다. 야구도 인생이든 자기가 맞춰진 게 아니다. 다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든 팀의 일부분이 돼서 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게 목표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아데를린 데뷔 첫 타석 홈런’ KIA, 한화 12-7 제압

### 1회말 2사 1·3루서 스리런포...팀 소속 2번째 기록 박재현 역전 아치·김도영 썩기 홈런 등 타선 폭발

KIA타이거즈가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 한화를 제압했다.

KIA는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12-7로 승리했다.

그 결과 15승 1루 16패 승률 0.484를 기록, 승패 마진은 -1로 줄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아데를린이 데뷔 첫 타석부터 홈런을 때려냈다. 박재현은 4안타 4타점을 몰아치며 한 경기 개인 최다 안타 타이, 최다 타점 기록을 세웠다. 김도영 또한 시즌 12호포를 쏘아 올리는 등 불방망이 타선을 앞세워 상대를 무너트렸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김호령(중견수)-김선빈(2루수)-김도영(지명타자)-아데를린(1루수)-나성범(우익수)-데일(우익수)-한준수(포수)-박민(3루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이의리가 나섰다. 총 49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1.2이닝 2피안타(1피홈런) 6사사구 3탈삼진 5실점(5자책)으로 부진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3km였다.

이의리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후속타자 페라자와 문현빈은 연속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강백호에게 병살타를 유도해내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KIA는 1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2사 상황 김선빈이 안타를 때려냈다. 이후 김도영의 안타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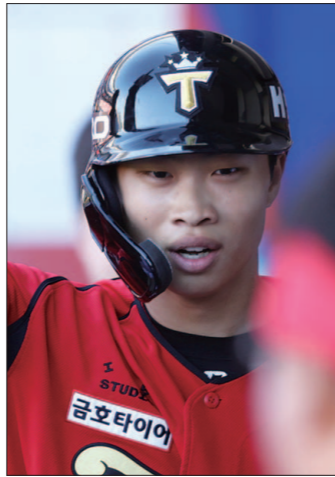
어진 2사 1·3루 찬스. 타석에 오른 아데를린이 데뷔 첫 타석에서 대형 타구를 폭발시켰다. 상대 5구째 127km 슬라이더를 그대로 견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포를 터트렸다. KBO리그 외국인 선수 6번째이자, KIA 소속으로는 황정림(2012년)에 이어 2번째 데뷔 첫 타석 홈런이다.

2회초에는 상대의 백이닝이 만들어졌다.

이의리는 상대 첫 타자 노시환에게 솔로포를 허용했다. 채은성 중전 안타 이후에는 허인서에게 볼넷을 내줬다. 보크까지 기록한 이의리는 하수석을 붙여 맞는 공으로 내보내며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후 심우준과 이진영을 삼진으로 처리했으나, 페라자와 문현빈을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강판했다.

마운드는 김태형이 이어받았다. 김태형은 강백호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노시환은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면했다. 경기는 3-5로 뒤집혔다.

KIA는 2회말 곧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선두타자 데일 볼넷 이후 한준수가 우전 안타를 때려냈다. 박민 볼넷으로 만들어진 무사 만루 찬스. 박재현이 타석에 올라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김



박재현

호령은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면서 데일이 홈에 들어왔다. 경기는 5-5 원점으로 돌아갔다.

3회초에는 김태형이 상대 채은성에게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았다. 허인서에게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다. 후속타자 하수석의 번트는 포수 앞에 뜨면서 2루 주자까지 아웃됐다. 심우준 볼넷 이후에는 이진영을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4회초는 강백호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으나, 벀타 2개와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KIA는 5회초 김태형 대신 한재승을 마운드에 올렸다. 한재승은 세 타자 연속 벀타를 얻어내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5회말에는 분위기가 다시 KIA 쪽으로 기울었다.

선두타자 박재현이 상대 3구째 149km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이후 2사 상황 타석에 오른 김도영이 상대 2구째 150km 직구를 그대로 때려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폭발시켰다. 시즌 12호포, 경기는 7-5가 됐다.

KIA는 6회말 1점, 7회말 4점을 각각 추가한 뒤 9회초 2실점으로 이닝을 막으면서 12-7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최강’ 안세영 선봉女 배드민턴, 우버컵 제패

### 결승서 중국 3-1 제압...김가는·백하나·김혜정도 승리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지난 3일(한국시간)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2026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 선수권대회(우버컵)’ 결승전에서 중국을 3-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년마다 개최되는 우버컵은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머스컵)와 더불어 배드민턴 단체전 최고 권위 대회다.

이날 한국은 지난 2010년과 2022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버컵 정상에 오르며 세계 여자 배드민턴 최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우승의 출발점은 역시 안세영이었다. 이번 대회 내내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결승에서도 세계 2위 왕즈이를 2-0(21-10 21-13)으로 완파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안세영은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흐름을 잡았다. 1게임에서 연속 7득점으로 7-1 리드를 만든 뒤, 하프 스매시와 헤어핀을 자유자재로 섞으며 왕즈이를 흔들었다. 결국 21-10으로 첫 게임을 따냈다.

2게임에서도 안세영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반 한때 12-9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다시 격차를 벌렸다. 마지막에는 허를 찌르는 헤어핀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20승 5패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공안중’을 각인시켰다. ‘공안중’은 중국 언론과 팬들이 안세영과 상대하면 두려워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 배드민턴계를 풍자할 때 쓰는 신조어다. 또 안세영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전승 행진을 벌이며 한국 우승의 중심에 섰다.

우버컵에서는 단식 3경기과 복식 2경기으로 치러지며 먼저 3승을 거두는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

안세영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소희(인천국제공항)-정나은(화성군청) 조가 세계 1위 류성수-탄닌 조에 0-2(15-21 12-21)로 패하며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세 번째 단식에서 김가는(삼성생명)이 승부를 다시 한국 쪽으로 끌어왔다. 김가는은 세계 4위 천위페이를 상대로 2-0(21-19 21-15) 승리를 거뒀다. 특히 1게임 초반 8-15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선 김가는은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고, 2게임에서도 15-15 이후 6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우승을 확정지은 것은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였다. 네 번째 복식에 나선 두 선수는 지아이판-장수현 조를 2-1(16-21 21-10 21-13)로 꺾고 한국의 우승을 확정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김다미, 광주시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 ‘우승’

김다미(광주시체육회)가 ‘제10회 광주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여일반부 정상에 올랐다.

김다미는 최근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송채원(인천시체육회)을 최종 스코어 3-0(11-7, 11-6, 11-8)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안방 이점을 살린 김다미는 출발부터 순조로웠다. 이번 대회 32강전에서 안은찬(대구시청)을 3-0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는 남지운

(서울스쿼시연맹)을 3-0, 8강에서는 과다연(울산시체육회)을 3-0으로 제압하며 무실 세트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는 양연수(전남도청)를 상대로 고전했다. 1세트를 11-6으로 따내며 기선을 제압한 김다미는 2세트에서 접전 끝에 14-16으로 패했다.

3세트마저 6-11로 내주며 분위기가 기우는 듯했으나, 4세트를 11-6으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5세트에서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 11-9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김다미

이어 결승에서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송채원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압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박한솔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감독은 “김다미가 이번 대회 내내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보여줬다. 특히 4강전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뒤집은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